제 70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본영화연구의 현황

강태웅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영화를 보는 시각에는 영화이론을 통한 내러티브 분석을 하는 ‘작품론’, 감독을 작가로 보고 연구하는 ‘감독론’, 역사중심의 ‘영화사’, 각 메이저 영화회사가 가지는 장르적인 특색중심의 ‘영화회사와 장르론’, 그리고 20 세기에 와서 부각되고 있는 영상이 역사자료로서의 가능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탐구 등이 있다.

1898 년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촬영이 있은 후, 1900 년대 초 활동사진, 무성영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활동사진의 시대에는 영화라는 용어의 등장 전이며, 촬영소를 소유한 메이저 회사가 등장한다(일활). 무성영화 시대에 와서는 감독의 지위 확립, 변사 철폐 및 여배우 사용이 제기된다. 이에 송죽이 등장하여 처음으로 여배우를 채용하기에 이르며, 전위영화와 경향영화의 등장도 눈에 띈다. 1930 년대에 들어오면서 토키영화가 등장함에 따라 변사는 사라지게 된다.

1930 년대는 토키영화의 도래와 함께 영화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 전쟁과 함께 영화를 통한 내쇼널리즘과 리얼리즘의 대두도 영화의 발전과 함께 두드러진다. 미군정하에 놓이는 GHQ 시대에는 ‘칼을 뽑지 않는 시대극’이라든가, 키스신의 도입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완화시킬수 있는 방향의 영화가 제작되곤 하였다. 1950 년대 라쇼몽 등의 국제영화제 수상 등 일본영화의 국제화와 더불어 전후일본영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0 년대와 60 년대에 걸쳐 강세를 보였던 일본영화는 그 시기의 TV 보급에 의해 열세를 면치 못하나, 전후 억눌려 있던 일본 감독들의 욕망의 분출로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변화를 겪는다. 1970 년대에 들어와서, 성인영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핑크영화가 제작영화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어서 1980 년대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였고, 제작회사도 다양해졌다. 1990 년대를 걸쳐서 2000 년대를 맞이하면서, 쿠로자와 아키라 감독과 같은 거장의 출현은 없으나, 다양성을 강점으로 일본영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Q&A>

Q. 최근 일본영화의 국제영화제 수상 소식이 뜬한 원인은?

A. 국제영화제는 다소 ‘돌아가면서’ 상을 수여하는 경향이 있다. ‘70년대 일본, 80년대 홍콩, 2000년대 한국, 최근은 태국 등 기타 국가’라는 식으로 국제영화제의 본 취지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Q. 한국영화는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의 사정은 어떠한가?

A. 한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영화인들도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일본은 영화인들 자체가 국가의 간섭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영화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한국영화와 일본영화의 강점과 약점은?

A. 한국영화는 사회나 조직을 강조하며 캐릭터가 평면적인데 반해, 일본영화는 소재의 다양성이 돋보인다. 이 두가지 요소가 잘 조합된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저작권인정문제를 포함한 일본영화의 작가에 대한 대우에 비해, 한국영화의 그것은 너무 미흡하다.

Q. 일본영화가 1890년대말의 예술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는 없는가?

A. 1900년대 초반 전세계 영화의 예술화는 처음에는 없었다. 그저 신기한 활동사진 썸이었다. 그러나 1910-20년대에 걸쳐서 영화의 기법 등의 예술활동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신파는 예술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